

대학생 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Factors Affecting the Length of Time to College Students' Employment

김민석, 안은비, 유경숙, 정효숙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Min-Seok Kim(kimms29@cbnu.ac.kr), Eun-Bi An(an94@kedi.re.kr),
Gyeong-Suk Yu(coco337@naver.com), Hyo-Sook Jeong(chong017@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 소요기간 및 정규직으로의 취업 소요기간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 대학의 특성 및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1개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문계열 전공자에 비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전공자의 취업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 소요기간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또한 남성일수록,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일수록 취업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분석에서 취업 소요기간은 대학 특성 및 대학에서의 경험보다 개인 특성으로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공계열별 차별화된 지원,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 결론을 도출하였다.

■ 중심어 : | 대학생 취업 | 취업 소요기간 | 정규직 취업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college, and educational experience at college on the length of employment and length of employment for regular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ength of employment required for social studies, education, engineering, and medicine major was shorter than that of major in humanities.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longer the time required for the job, the more the male and the university graduate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i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length of time required for employment could be explained more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an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and educational experience at colle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differentiated support for each major and the necessity of supporting programs tailored to the needs of students respectively.

■ keyword : | College Student Employment | Period of Employment | Full-time Employment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

각해지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6년 76.6%에서 2015년 72.0%로 4.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정규직 취업률은 2006년 63.1%에서 2015년 52.5%로 10.6%포인트

접수일자 : 2018년 06월 08일
수정일자 : 2018년 07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23일
교신저자 : 정효숙, e-mail : chong017@naver.com

트 감소했다. OECD(2015)에 따르면 2013년의 청년실업률은 8.0%이지만, 당해 연도 우리나라 청년 NEET(Not Employed, Educated, or Trained)족 비율은 18%로써 실질적인 체감실업률은 26.0%였으며, 25~29세의 비율은 24.0%, 체감실업률은 31.1%의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기초했을 때, 대학졸업 후 청년 3명 중의 1명이 실질적인 실업자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1].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대졸자의 상당수가 미취업 상태에 머무른다는 사실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경력 축적 지연과 전 생애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성 감소, 실업률 가중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증대 등의 부정적 결과로 귀결되므로, 대학졸업생의 취업난은 청년 개인만의 손실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손해인 것이다[2].

이에 대학 취업을 제고를 위해 대학 및 교육부 차원의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대학 취업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1]. 또한 대졸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대학생의 취업에 관한 연구도 최근 들어 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대졸자의 특성·취업태도·진로성숙도·대학생활경험 등 대학생 개인의 특성요인을 분석한 경우가 많았으며, 진로와 취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제는 단순히 취업 여부에 관심을 갖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을 거쳐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학이라는 환경 특성이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소요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역량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3], 대학 특성에 따라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겪는 경험과 활동 및 이후 대학 교육성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 특성이 개인 특성에 주는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대학 특성이 대학생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대학생의 취업에 있어 개인 특성뿐 아니라 대학 특성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말해준다.

취업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소들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취업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이 대학의 성과이자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 영향 요인 분석에서 더 나아가 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특성 요인을 분석하여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취업률 제고와 취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지금껏 대학생과 대학, 정부의 노력들은 개인의 능력을 높이면 취업 성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상식적인 믿음에 기인하여 개인의 능력 신장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준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복수전공 이수, 인턴십 경험은 취업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취업에 있어서 성별이나 출신대학의 서열 혹은 소재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공통된 결론으로 드러내고 있다[4-6].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대졸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에만 초점을 두었으며, 개인 특성과 더불어 대학 특성 변인을 살펴본 연구가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지만 주로 대학서열, 대학소재지에 관심을 둔 연구가 많았다[7]. 대학교육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 수행을 위해 국외 여러 연구가 대학교육 내부 문제 및 요인에 접근하였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연구가 미비하였다[8]. 특히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적 요소의 질적 차이가 개인의 생산성 향상 및 취업성공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대학의 교육 과정적 요소에 주목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7], 대학 특성 및 학생이 대학에서 경험하는 교육 경험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주목한 단순 취업 여부에서 더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 소요기간에 있어서 개인특성에 더하여 대학의 특성 및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생의 취업 소요기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둘째, 대학생의 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 셋째,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분석

1. 개인특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전공 등이 있다. 취업성파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남성이 여성보다 유리하고, 임금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에[4][5], 임금은 남성이 더 높았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짧은 것을 확인하였다[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6],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나이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증가하였다[9].

대학에서의 전공에 따른 취업을 격차 또한 나타난다. 남녀를 분리하여 전공별 취업격차를 분석한 결과 남자 대졸자의 경우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의약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졸업생의 취업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자 대졸자의 경우는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교육계열, 의약계열, 공학계열 졸업생의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6].

2. 대학교육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조직 안에서 4년의 긴 대학 생활을 통해 학문적, 사회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지식과 학문을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 선·후배, 동료 등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는 것 역시 대학생의 진로 개발 확대 및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학교생활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점, 부(복수) 전공이수,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서비스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개인의 '성적 및 학업 수행'은 일반적으로 학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인의 학업과 성적은 학업 수행 면에서 대학생활의 적응을 의미하며, 휴학이나, 졸업의 속도 및 취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GPA 점수가 높을수록 휴학할 확률이 낮았고, 과목 평균 평점이 높은 학생의 졸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0][11].

부(복수) 전공이수 여부와 관련된 연구에서 살펴보면, 일반대학 졸업자의 경우 전공 다시 선택 여부, 복수 전공 이수 여부가 시간당 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12], 복수전공 이수가 일반 4년제 대학 여학생에게서 취업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6].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취업성과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개인특성(배경요인, 취업준비특성), 대학특성(교육 인프라 만족도, 교육과정만족도), 대학취업 지원특성(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정규직으로의 진입 가능성, 취업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3. 대학특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취업에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기관적 특성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특성과 관련하여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률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간 차이가 존재하고, 취업률을 제외한 6가지 요인에서 국립대가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14].

대학소재지 또한 취업성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대학 졸업생이 수도권 졸업

생보다 취업이행기간이 짧고, 임금이 낮았으며[5], 지방 대학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 비율, 취업이행 기간, 사업 체 규모, 임금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취업 소요기간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대학생의 취업 소요기간은 자신이 속한 대학이라는 환경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대학생 취업소요기간에 영향을 주는 대학의 특성 변인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학생의 특성 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분석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는 2004년 기준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6,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1차년도(2004년)부터 11차년도(2014년) 11개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 입학자 중, 졸업 후 취업 여부가 확인된 687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활용 변수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인인 취업 소요기간은 4년제 대학 입학 후,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 취업이 확인된 연도까지의 소요기간으로 구성하였다. 대학 특성 및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을 변수로 활용한 본 연구의 특성상, 4년제 대학 미졸업자의 취업 여부는 제외하였다. 또한 단순 취업 여부만으로는 취업의 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정규직 취업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종단 자료임을 고려하여 해당 변수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시기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개인특성으로 성별, 가구소득, 입학 시 진로결정 여부 및 전형유형, 대학에서의 전공계열을 활용하였고, 가구소득은 졸업 후 독립 가구 형성 가능성 등 대학 재학 시점과 졸업 이후 추정값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시기에 해당하는 1~5차년도 평균값, 진로결정 여부는 입학 시기인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학 교육 경험으로는 재학 중 전과 및 복수전공 경험, 대학원 진학 여부, 학자금 대출 여부, 동아리 활동 경험, 학과 및 대학 시설에 대한 만족도, 재학 중 교수와의 상담 횟수, 수업 태도, 대학의 학생 상담 및 진로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활용하였고, 대학 특성은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merge하여 대학 유형 및 소재 지역, 교수 1인당 학생 수, 전임 교원 비율, 학생 1인당 장학금을 활용하였다. 대학 졸업자의 추정값이 결측값으로 처리되는 변수(학과 만족도, 대학 시설 만족도, 교수와의 상담 횟수, 수업 태도, 학생 상담 서비스 만족도, 진로 상담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2차년도부터 10차년도의 평균값을 활용하였고, 대학 재학 시점과 졸업 이후 추정값의 차이가 예상되는 변수(동아리 활동 경험)에 대해서는 대학 재학 기간 5개년을 가정하여 활용하였다.

표 1. 변수 설명

변수	변수 설명	
취업 소요기간	4년제 대학 입학 후 전일제 취업 확인 연도까지의 소요기간	
정규직 취업 소요기간	4년제 대학 입학 후 정규직 취업 확인 연도까지의 소요기간	
성별(여성)	남성=0, 여성=1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 소득(1차년도~5차년도 5개년 평균)(로그 변환)	
진로결정 여부	대학 입학 시(2차년도) 진로 결정 여부	
전형유형(수시)	정시=0, 수시=1	
개인 특성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대학에서의 전공계열
	자연계열	
전공 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전과 경험	미경험=0, 경험=1
대학 교육 경험	복수전공 경험	미경험=0, 경험=1
	대학원 진학	미진학=0, 진학=1
	학자금 대출 여부	미경험=0, 경험=1
동아리 활동 경험	재학 중 동아리 활동 여부 (2차년도~6차년도 5개년 기준)	

학과 만족도	학과에 대한 만족 정도 (2차년도~11차년도 10개년 평균) - Likert 5점 척도
대학 시설 만족도	대학 시설 만족도 관련 4개 문항 평균 (2차년도~11차년도 10개년 평균)
교수와의 상담 횟수	연 평균 학업·진로와 관련한 교수와의 개별면담 횟수(2차년도~11차년도 10개년 평균)
수업 태도	수업 태도 관련 5개 문항 평균(2차년도~11차년도 10개년 평균)
학생 상담 서비스 만족도	학교의 학생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2차년도~11차년도 10개년 평균) - Likert 5점 척도
진로 상담 서비스 만족도	학교의 진로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2차년도~11차년도 10개년 평균) - Likert 5점 척도
현장 실습 경험	경험 없음
의무 참여 경험	의무 참여
자발 참여 경험	자발 참여
대학 유형 (국공립)	사립=0, 국공립=1
대학 소재지 (수도권)	비수도권=0, 수도권=1
교수 1인당 학생 수	대학별 교수 1인당 학생 수
전임 교원 비율	대학별 전임 교원 비율
학생 1인당 장학금	대학별 학생 1인당 장학금(로그 변환)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개인 특성, 대학 특성 및 대학 교육 경험 변인이 학생의 졸업 후 취업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취업까지의 소요기간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을 분석한다. 종속변인인 개인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가산자료(counting data)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속 변수로 가정할 경우 분석 결과의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산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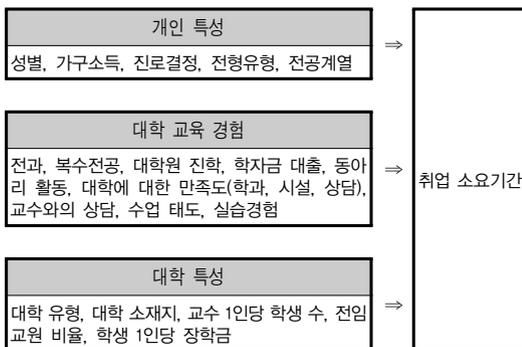


그림 1. 분석틀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년도(2004년)부터 11차년도(2014)까지 11개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2차년도에 4년제 대학 입학자 중 취업이 확인된 687명¹ 및 정규직으로 취업이 확인된 593명의 취업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 2. 입학 후 취업 소요기간

소요기간	취업자		정규직 취업자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4년	111	16.16	73	12.31
5년	85	12.37	64	10.79
6년	101	14.70	93	15.68
7년	157	22.85	135	22.77
8년	141	20.52	130	21.92
9년	92	13.39	98	16.53
합계	687	100	593	100

취업자 687명의 각 변인별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약 51%, 여성이 약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약 45%는 대학 입학 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약 10%, 사회계열 약 29%, 교육계열 약 5%, 공학계열 약 27%, 자연계열 약 14%, 의약계열 약 3%, 예체능계열 약 13%로 확인되었다.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으로는 전과 경험자가 약 4%, 복수전공 경험자가 약 20%, 대학원 진학자가 약 9%로 나타났고, 약 30%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와의 상담 횟수는 연 평균 1.79회 정도로 나타났고, 현장실습은 의무 참여 및 자발 참여 각각 약 19%, 약 15%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출신 대학 특성으로는 국공립 대학이 약 26%, 수도권 소재 대학이 약 28%로 나타났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약 27.8명, 전임 교원 비율은 약 79%로 나타났다.

1 2차년도 4년제 대학 입학자 중, 해외 대학 진학자, 중퇴 경험자 및 2차년도 이후 설문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4년제 대학 졸업 후 최초 전일제 일자리 취업 및 자영업(졸업 전 전일제 일자리 취·창업 제외) 확인자

표 3. 기술통계 결과

구분		n	M	S.D	Min	Max	
취업 소요기간		687	6.59	1.64	4	9	
개인 특성	성별(여성)	687	0.49	0.50	0	1	
	가구소득(ln)	687	5.64	0.57	3.40	7.96	
	진로결정 여부	687	0.45	0.50	0	1	
	전형유형(수시)	687	0.42	0.49	0	1	
	전공 계열	인문계열	687	0.96	0.30	0	1
		사회계열	687	0.29	0.45	0	1
		교육계열	687	0.05	0.21	0	1
		공학계열	687	0.27	0.45	0	1
		자연계열	687	0.14	0.35	0	1
	의약계열	687	0.03	0.16	0	1	
예체능계열	687	0.13	0.34	0	1		
전과 경험	687	0.04	0.20	0	1		
복수전공 경험	687	0.20	0.40	0	1		
대학원 진학	687	0.09	0.28	0	1		
학자금 대출 여부	687	0.30	0.46	0	1		
동아리 활동 경험	687	0.68	0.47	0	1		
학과 만족도	687	3.67	0.70	1	5		
대학 교육 경험	대학 시설 만족도	687	3.55	0.51	1.8	4.77	
	교수와의 상담 횟수	687	1.79	2.02	0	22.33	
	수업 태도	687	3.58	0.39	2.03	4.72	
	학생 상담 서비스 만족도	687	3.02	0.59	1	4.75	
	진로 상담 서비스 만족도	687	3.16	0.61	1.33	5	
현장 실습 경험	경험 없음	687	0.66	0.47	0	1	
	의무 참여	687	0.18	0.39	0	1	
	자발 참여	687	0.15	0.36	0	1	
대학 유형(국공립)	687	0.26	0.44	0	1		
대학 소재지(수도권)	687	0.28	0.45	0	1		
교수 1인당 학생 수	687	27.76	4.70	11	61		
전임 교원 비율	687	78.45	14.08	41	181		
학생 1인당 장학금(ln)	687	7.98	0.16	6.98	9.09		

2. 분석 결과

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평균 1.92, 최대 5.91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취업 소요기간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취업자)

구분	coef.	S.E.	IRR	coef.	S.E.	IRR	coef.	S.E.	IRR		
성별(여성)	-0.80***	0.05	0.45-0.81***	0.06	0.45-0.83***	0.06	0.44				
가구소득(ln)	-0.01	0.04	0.98	-0.01	0.04	0.98	-0.03	0.04	0.97		
진로결정 여부	-0.01	0.05	0.98	0.00	0.05	1.00	0.00	0.05	1.00		
전형유형(수시)	-0.03	0.05	0.97	-0.02	0.05	0.98	0.01	0.05	1.01		
개 인 특 성	인문계열 (준거집단)										
	사회계열	-0.20*	0.09	0.82	-0.17*	0.09	0.85	-0.17*	0.09	0.85	
	교육계열	-0.49**	0.16	0.61	-0.40*	0.17	0.67	-0.39*	0.17	0.68	
	전공 계열	공학계열	-0.20*	0.09	0.82	-0.17*	0.09	0.84	-0.18*	0.09	0.83
		자연계열	-0.08	0.10	0.93	-0.07	0.10	0.94	-0.07	0.10	0.93
	의약계열	-0.49**	0.19	0.62	-0.44*	0.19	0.64	-0.43*	0.19	0.65	
	예체능계열	-0.22*	0.10	0.80	-0.18	0.11	0.84	-0.17	0.11	0.84	
	전과 경험				0.04	0.11	1.04	0.04	0.11	1.04	
	복수전공 경험				0.08	0.07	1.08	0.05	0.07	1.05	
	대학원 진학				0.22**	0.08	1.25	0.22**	0.08	1.24	
학자금 대출 여부				0.01	0.05	1.01	0.02	0.05	1.02		
대 학 교 육 경 험	동아리 활동 경험				0.04	0.05	1.04	0.03	0.05	1.03	
	학과 만족도				0.00	0.04	1.00	0.00	0.04	1.00	
	대학 시설 만족도				0.00	0.06	1.00	0.00	0.06	1.00	
	교수와의 상담 횟수				-0.01	0.01	0.98	0.00	0.01	1.00	
	수업 태도				0.02	0.07	1.02	0.02	0.07	1.02	
	학생 상담 서비스 만족도				-0.03	0.07	0.97	-0.02	0.07	0.98	
	진로 상담 서비스 만족도				0.02	0.07	1.02	0.02	0.07	1.02	
	현장 실습 경험	경험 없음 (준거집단)									
		의무 참여				-0.11	0.07	0.90	-0.11	0.07	0.90
		자발 참여				-0.02	0.07	0.98	-0.05	0.07	0.95
대학 유형(국공립)							-0.01	0.07	0.99		
대학 소재지(수도권)							0.13*	0.06	1.14		
교수 1인당 학생 수							-0.01	0.01	0.99		
전임 교원 비율							0.00	0.00	1.00		
학생 1인당 장학금(ln)							-0.06	0.18	0.94		
cons	1.51***	0.25	4.50	1.43***	0.37	4.17	2.50	1.59	12.21		
Pseudo R ²	0.10			0.11			0.11				

+ p<0.1, * p<0.05, ** p<0.01, *** p<0.001

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성별, 전공 계열, 대학원 진학, 대학 소재지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대학원에 진학할수록 취업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났고, 비수도권 대학보다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일수록 취업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전공 계열별 취업 소요기간 또한 다르게 나타났는데, 인문계

열 전공자에 비하여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전공자일수록 취업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별 승산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취업 소요기간이 짧게 나타날 확률이 56%가량 증가하고, 대학원에 진학할수록 취업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날 확률이 24%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일수록 취업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날 확률이 14%가량 증가하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 전공자에 비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전공자의 취업 소요기간이 짧게 나타날 확률이 각각 15%, 32%, 17%, 3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정규직 취업자)

구분	coef.	S.E	IRR	coef.	S.E	IRR	coef.	S.E	IRR	
성별(여성)	-0.62 ^{***}	0.06	0.54-0.63 ^{***}	0.06	0.53-0.65 ^{***}	0.06	0.60	0.50	0.96	
가구소득(ln)	-0.02	0.04	0.98-0.03	0.04	0.97-0.04	0.05	0.96			
진로결정 여부	-0.03	0.04	0.97-0.02	0.04	0.98-0.00	0.05	1.00			
전형유형(수시)	-0.03	0.04	0.97-0.02	0.04	0.98-0.00	0.06	1.00			
개인 특성	(준거집단)									
	사회계열	-0.17 ⁺	0.06	0.85-0.16 ⁺	0.06	0.85-0.16 ⁺	0.09	0.85		
	교육계열	-0.33 ⁺	0.16	0.72-0.30 ⁺	0.17	0.74-0.28 ⁺	0.17	0.76		
	공학계열	-0.23 ⁺	0.09	0.79-0.24 ⁺	0.10	0.79-0.25 ⁺	0.10	0.78		
	자연계열	-0.17 ⁺	0.10	0.84-0.18 ⁺	0.11	0.84-0.19 ⁺	0.11	0.83		
	의약계열	-0.43 ⁺	0.18	0.65-0.41 ⁺	0.19	0.65-0.42 ⁺	0.19	0.66		
	예체능계열	-0.23 ⁺	0.11	0.79-0.21 ⁺	0.11	0.81-0.20 ⁺	0.11	0.82		
	전과 경험			0.03	0.12	1.03	0.04	0.12	1.05	
	복수전공 경험			0.04	0.07	1.05	0.02	0.07	1.02	
	대학원 진학			0.20 ⁺	0.05	1.22	0.20 ⁺	0.09	1.22	
대학 교육 경험	학자금 대출 여부			0.03	0.06	1.03	0.03	0.06	1.03	
	동아리 활동 경험			0.08	0.04	1.09	0.07	0.06	1.08	
	학과 만족도			-0.01	0.04	0.98-0.01	0.04	0.99		
	대학 시설 만족도			0.06	0.06	1.06	0.05	0.06	1.05	
	교수와의 상담 횟수			-0.01	0.01	0.98-0.01	0.01	0.99		
	수업 태도			0.01	0.07	1.01	0.02	0.07	1.02	
	학생 상담 서비스 만족도			0.02	0.01	1.02	0.02	0.01	1.02	
	진로 상담 서비스 만족도			-0.04	0.07	0.98-0.05	0.07	0.95		
	(준거집단)									
	현장 경험 없음			-0.07	0.07	0.95-0.08	0.07	0.93		
경험 자발 참여			-0.06	0.07	0.94-0.09	0.07	0.92			
대학 특성	대학유형(국공립)					0.02	0.07	1.02		
	대학소재지(수도권)					0.09	0.06	1.10		
	교수 1인당 학생 수					-0.01	0.01	0.99		
	전임 교원 비율					0.00	0.00	1.00		
	학생 1인당장학금(ln)					0.04	0.21	1.04		
	cons	1.63 ^{***}	0.26	5.11	1.49 ^{***}	0.34	4.44	1.66	1.78	5.28
	Pseudo R ²	0.07		0.08		0.08		0.08		

+ p<0.1, * p<0.05, ** p<0.01, *** p<0.001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에는 성별, 전공계열, 대학원 진학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대학원에 진학할수록 정규직으로의 취업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학생의 전공계열별로 정규직으로의 취업 소요기간 또한 다르게 나타났는데, 인문계열 전공자에 비하여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전공자일수록 취업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별 승산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취업 소요기간이 짧게 나타날 확률이 48%가량 증가하고, 대학원에 진학할수록 취업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날 확률이 22%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 전공자에 비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전공자의 취업 소요기간이 짧게 나타날 확률이 각각 15%, 24%, 22%, 34%, 18%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 특성 요인에 비해 대학교육경험 및 대학의 특성 요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 증가량이 미미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학생 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 요인에 비해 대학 교육경험 및 대학의 특성은 큰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수전공 이수, 인턴십 경험 등은 취업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취업에 있어서 성별이나 출신대학의 서열 혹은 소재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4-6].

분석 결과, 전공계열별로 취업 소요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문계열 전공자에 비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전공자의 취업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직으로의 취업 역시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전공자의 취업 소요기간이 인문계열 전공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문계열 전공자의 취업난이 취업 소요기간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인문계열 전공

자의 취업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취업 및 정규직 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준 변인으로는 성별, 대학원 진학, 대학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군 입대나, 대학원 진학을 통한 학습기간의 연장 등은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나, 정규직으로의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일수록 첫 직장을 정규직 등 질 좋은 일자리로 원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는바,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이 확인된 사람들만을 취업 소요기간의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차이는 다루지 못하였다. 미취업자와 비교한 취업자의 취업 소요기간 또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안기돈, “생태계적 작동원리에 기초한 효과적인 대학 취업지원 방안 연구,”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제6권, 제3호, pp.21-43, 2016.
- [2] 강주연, 오유, 김기승, “대졸자 특성과 취업 소요기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논문지, 제25권, 제2호, pp.31-49, 2015.
- [3] M. A. Kuijpers, F. Meijers, and C. Gundy,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environment and career competencies of students in vocational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8, No.1, pp.21-30, 2011.
- [4] 김미성, 대학 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5] 송정련, 대학 졸업자 첫 직장 이행과 임금에 대한 구직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6] 채창균, 김태기,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논문지, 제29권, 제1호, pp.89-107, 2009.
- [7] 김병주, “부실대학의 개념 및 평가요소 탐색,” 교육행정학연구논문지, 제34권, 제2호, pp.287-311, 2016.
- [8] 전제식, 민주홍,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와 성과 (I), 연구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 2009.
- [9] 성효용, 김민경,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문지, 제65호, pp.117-148, 2003.
- [10] 장희원, 김경근, “대학생의 졸업 속도 영향요인에 대한 생존분석: 4년제 대학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회학연구, 제24권, 제3호, pp.217-241, 2014.
- [11] 주휘정, 차성현, “대학생의 휴학 결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논문지, 제29권, 제1호, pp.277-293, 2011.
- [12] 남기곤, 윤진호, 이시균, “대학 재학 중 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경제발전연구논문지, 제16권, pp.143-172, 2010.
- [13] 이종찬, 박지현, “대학생 취업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NCS 기반 채용의 활용가능성 탐색,”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제5권, 제4호, pp.139-160, 2015.
- [14] 강창동, “한국의 국립대와 사립대의 대학경쟁력 비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논문지, 제20권, 제3호, pp.301-323, 2014.
- [15] 류장수,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2호, pp.1-27, 2005.

저 자 소 개

김민석(Min-Seok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문학사)
- 2017년 2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관심분야> : 교육행정, 취업, 진로교육

안은비(Eun-Bi An)

준회원



- 2016년 2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16년 2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관심분야> : 교육행정, 교육정책, 취업

유경숙(Kyoung-Sook Yoo)

정회원



- 1995년 2월 : 용인대학교 사회체육학과(이학사)
- 2017년 2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관심분야> : 교육행정, 교육법, 교육정책, 사교육

정효숙(Hyo-Sook Jeong)

정회원



- 2004년 2월 : 청주교육대학교 초등영어교육(교육사)
- 2012년 8월 : 청주교육대학교 초등영어교육(교육석사)
- 2017년 2월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교육행정, 교육법, 영어교육, 진로교육